

폭주 차량 많은 광주·전남 도로는?

최근 5년 150km 초과 115건

영암~순천 고속도로 12건

광주 2순환로 두암 IC 8건

사고 위험...운전자들 공포

“치벌 수위 높아야” 목소리

광주·전남에서 굉음을 동반한 과속차량 때문에 운전자들이 공포에 떠는 도로는 어디일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도로에서 최근 5년간 지속 150km를 초과한 ‘초과속’ 차량은 115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현행 법규상 아무리 과속을 해도 과태료를 13만원까지 밖에는 부과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초과속 차량들이 적발된 구간을 살펴보면 영암~순천간 고속도로 순천방향(보성군 조성면 대곡리 부근)이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구간에서는 적발된 초과속 차량들의 평균 속도는 시속 192.58km에 달했다.

뒤이어 광주제2순환도로 지산터널 앞(두암IC)과 제2순환도로 진월IC 부근에서 각각 8대의 초과속 차량이 적발됐다.

고속도로와 순환도로 등을 제외하면 광주시 광산구 SK텔레콤 앞(무안방향) 도로에서 가장 많은 7대의 초과속 차량이 단속에 적발됐다.

평소 출퇴근길 광산구 SK텔레콤 앞 도로를 이용한다는 직장인 김모(여·50)씨는 “밤 늦게 퇴근을 하다 보면 상향등을 켜 채 뒤에서 빠르게 다가오는 차량들 때문에 겁이 난다”고 말했다.

적발된 초과속 차량들의 속도를 분석해 보면 시속 200~247km 13대, 190~199km 25대, 180~189km 22대, 170~179km 24대, 160~169km 24대, 150~159km 7대였다. 시속 180km를 초과한 차량이 60대로

무려 52%에 달했다.

최고 위반 속도를 기록한 차량은 벤츠 S63 AMG 차량으로 올해 광주~대구간 고속도로(담양군 담양읍 학동리 부근)를 시속 247km로 질주했다.

하지만 이 같은 광란의 질주를 벌인 운전자들에게 고작 13만원의 과태료 처분만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247km로 질주한 차량과 151km로 내달린 차량의 과태료는 13만원으로 동일했는데,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제한속도를 60km/h 초과할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 13만원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다만 올 12월 10일부터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에 따라 제한속도를 80km 넘겨

운전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한속도를 80km/h 초과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 제한속도를 100km/h 초과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 3회 이상 제한속도를 100km/h 초과해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도로에서 160km/h로 질주하면 벌금 30만원 처분을 받고, 180km/h 이상의 속도로 달리다 3회 이상 적발되면 최대 1년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개정안에도 교통전문가 사이에서는 초과속 운전의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른 운전자에게 공포감을 주는 초과속 운전은 사고 발생시 심각한 인명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폭력이나 마찬가지로 심리적 경각심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백승권 광주시 교통문화연수원 과장은 “우리나라는 교통 선진국에 견줘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범칙금이 낮은 편으로, 스웨덴의 경우 개인 소득에 비례해서 범칙금을 물리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상향 추세시키는 하지만 더욱 강화돼야 한다. 범칙금의 상향이 교통사고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건 이미 교통선진국에서 증명됐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도심 공사현장 화재 12일 오후 2시 10분께 광주 동구 서석동 한 건물 신축 현장의 건축용 단열재 더미에서 불이 나, 긴급 출동한 119소방대가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단열재가 불에 타면서 치솟은 연기 때문에 119상황실에는 대형 화재를 우려한 시민들의 문의가 이어졌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전남 내년 공립 중·고교 교사 신규 선발 189명 늘어

사립 위탁채용 포함 835명

코로나 영향 보건·상당 증가

광주·전남 공립 중·고등학교가 2021년 사립학교 위탁채용을 포함해 교사 835명을 신규 선발한다. 전년도 보다 189명 많은 수치로 사립 위탁채용이 증가했고,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선발을 늘린 결과다.

광주시교육청 공립 중등 신규교사 채용 공고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올해 11월 21일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통해 국어 교과를 포함한 24개 과목에서 229명(장애인 구분 모집 포함)을 선발할 예정이다. 전년도 보다 1과목, 68명이 증가했다. 공립은 ▲중등교사 55명 ▲특수(중등)교사 10명 ▲보건교사 17명 ▲영양교사 9명 ▲사서교사 1명 ▲전문상담교사 14명을 선발하고, 사립은 위탁채용을 신청한 25개 사학

법인이 교사 123명을 선발한다.

전남도교육청도 국어를 비롯한 28개 과목에서 총 606명(공립 559명·사립 147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전년도 121명 증가한 수치다. 공립은 ▲중등교사 320명 ▲특수(중등)교사 25명 ▲보건교사 83명 ▲영양교사 44명 ▲사서교사 28명 ▲전문상담교사 59명을 선발하고, 사립 위탁채용은 51개 학교에서 147명을 선발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 구분모집은 공립에서

17개 과목 39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공립 중등교사 선발인원은 지난 8월 발표한 사전예고인원 270명보다 289명이 늘어났다. 이는 전남교육청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일반교과와 특수(중등)·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교사의 정원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제1차 시험은 11월 21일 실시하고, 합격자는 12월 29일 발표한다. 제2차 시험의 경우 실기 2021년 1월 20일~21일, 수업실연 1월 26일, 교직적성심층면접 1월 27일 등으로 나눠 실시하며, 최종합격자 발표는 2월 10일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북구,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 나선다

초록재단 등 8개 기관과 협약

광주시 북구가 유관기관들과 협력해 어린이들이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에 나선다.

12일 북구에 따르면 북구는 이날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아동옹호센터’ 등 8개 기관과 함께 ‘아동이 안전한 마을만들기 그린로드 대장정’ 업무협약을 맺었다.

‘그린로드 대장정’은 아동 친화적인 보행로를 조성해 통학 시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광주시의 ‘시민 정책 마켓’에서 선정된 정책이다.

이번 협약에는 북부경찰서,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TBN광주교통방송, 용

주초등학교, 용주초등학교 학부모회, 용봉동주민자치위원회, 용봉보물터 등 교통유관기관과 단체도 참여했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단체는 ▲아동 교통안전 정보교류 및 민·관 협력 모델 개발 ▲아동 교통안전 옹호체계 구축 ▲교통안전 환경 조성 및 인식 확산 홍보 등의 활동을 펼친다.

북구는 먼저 오는 12월까지 용주초등학교 인근 통학로 내 인도가 없는 이면도로에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고 보행 폭만큼 색을 칠하는 그린로드를 조성, 안전보행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동구 ‘245생활문화방송’ 유튜브 방송

광주시 동구가 ‘코로나19’로 인해 누리 기 어려운 문화생활을 온라인 방송으로 제작한다.

광주 동구가 ‘전일생활문화센터’(전일 245빌딩 4층)에 광주시민을 위한 문화서비스 콘텐츠 ‘245생활문화방송’을 개설하고, 13일부터 매주 화요일 2시 라이브방송을 송출한다고 12일 밝혔다.

‘245생활문화방송’은 동구행복재단에서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문화예술 관련 분야 지역문화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두고 운영되며, 광주다움을 담은 음

악중심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광주시민들에게 추억을 통한 위로와 희망을 전달하게 된다.

특히 코로나 여파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광주 예술문화인을 위한 ‘렉처 콘서트’를 통해 경제적 도움과 함께 창작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들이 직접 방송에 참여하는 주민 진화형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음악과 함께 다양한 생활 속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도 마련돼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서구 ‘대한민국 지식대상’ 특별상 수상

광주시 서구가 ‘제9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지식행정(행정기관) 분야 특별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지식대상은 민간과 공공부문의 지식행정·경영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정한 이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이번 제9회 대한민국 지식대상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응모해 서면심사, 온라인국민심사, 발표심사를 거쳐, 지식행정분야로 행정기관 13개, 지식경영분야로 민간·공공 7개 기관이 선정됐다. 서구는 주민 및 공무원 대상 제언제도, 아이디어 공모전, 구청장 주민과의 대화, 서구청 SNS 그리고 청년정책 참여단 등을 운영하며 지식기반 활동들을 활발히 펼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민석 기자 mskim@

전남도교육청 학교 기숙사 폭력 예방 CCTV 설치 등 권장

전남도교육청이 학교 기숙사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기숙사 내 복도에 폐쇄회로(CCTV)와 비상벨 설치를 일선 학교에 적극적으로 권장하기로 했다. 또 기숙사 폭력과 관련해 학기별 1회 정기적으로 설문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12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영광 모중학교 기숙사에서 성추행 피해를 본 남자 중학생이 돌연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최근 이러한 내용의 ‘기숙사 생활교육 및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대응 내용’을 마련했다. 전남 지역에서 기숙사를 운영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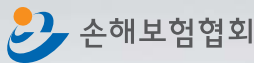
학교는 중학교 9개교, 고등학교 132개교 총 141개이다.

도 교육청은 학교 예산이 수반되는 CCTV(비상벨) 설치의 의무 설치로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권장하기로 했다.

기숙사생들을 대상으로 학기별 1회 학교 폭력 실태를 설문 조사하면 폭력을 예방하고 폭력실태를 파악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숙사 자치활동을 강화하고 자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확대하도록 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딱 한잔 드셨습니까?



2019년 6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어
딱 한 잔만 마셔도 처벌되고
단속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래도 음주운전하시겠습니까?